

로버트 야브러 박사, 요한서신, 4 차시 , 요한2서, 신뢰할 수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를 "요한 서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강의를 "요한 3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2서는 매우 유사한 형식과 언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이 책을 "신뢰받는 교회에 보내는 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해석 방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가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혹시 처음에 이 책을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 봐 두 번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두 단계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다' 는 것은 ,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떤 성경책이나 구절, 혹은 중요한 구절이든, 그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언어가 아닌 언어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저는 45년 넘게 공부해 왔는데, 더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왜 계속 배우는 건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많은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기본적인 것들,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말하기 전에 ,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찾는 건 정말 쉽습니다 .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관 짓죠. 만약 당신이 성경

구절의 배경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그 구절을 적용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싶어 하고,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될 내용을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고 난 후에는 판단을 내리고, 그 순간 그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고 싶지만, 적어도 그때 존재했던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진행하면서 노란색 글씨로 텍스트를 표시하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네모 안에 표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구분하겠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해석이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겠지만, 우리가 주로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2서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한의 사랑, 즉 독자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쁨이지만 동시에 염려이기도 한 그의 마음, 셋째, 이 회중을 향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로 끝납니다.

먼저, 요한의 진실한 사랑,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장로, 즉 요한은 택함받은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2서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들을 집단으로 단수로 언급하지만, 이 여인에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처음 읽기 시작하면, 이 여인은 한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회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전체 집단을 택함받은 여인이라고 부르고, 회중의 구성원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한 말은,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 때문에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관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제 이름은 요한1서와 요한3서의 언어와 유사하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저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동료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교회적 연대감을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죄 사함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개인적 차이, 부족적 차이, 사회적 차이, 경제적 차이, 교육적 차이를 초월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두거나, 누가 원수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우리 중 하나가 아니라, 그들 중 하나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교회’와 관련된 ‘에클레시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세 구절에서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연대를 갖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복음 메시지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복음 메시지가 나타내는 것,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리켜야 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으로 제기하지만, 요한이 요한2서를 에베소 회중에게 쓴 것일까요? 그곳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두드러진 회중이었고, 만약 요한이 제가 이론화한 대로라면, 그는 요한1서를 위한 표지 서신으로 교회에 요한2서를 쓴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때문에, 요한1서는 문제가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분열이 있었고 회중에서 거짓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해야 할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내용을 떠올려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거의 확실히 교회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바울은 교회가 누리고 있는 교회적 연대성에 관해 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방식대로 행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간절히 구하라.” 그러므로 이 하나 됨은 성령이 만들어내는 하나 됨일 수 있고, 성령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일부로서 소유하는 하나 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된 영은 복음 메시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에게 하나 됨을 가져다주실 것이며, 살롬의 띠, 곧 평화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요한삼서 끝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도 하나이고 영도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곧 교회의 연대입니다.

몸은 하나이고 영은 하나이며, 주목할 점은 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가정 교회가 있었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일곱 개의 아시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하나의 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몸들이 있었지만 모두 연합되어 있고, 교회의 연대가 있으며, 몸도 하나이고 영도 하나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번역자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는 모든 이 위에 계시고 모든 이와 모든 이 안에 계시고 모든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서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요한2서라고 불리는 이 작은 편지에 강한 교회적 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사말을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목회적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요한일서의 표지라면, 요한일서에는 더 크고 긴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낙관주의나 모든 이성애 반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강의 앞부분에서 저는 존의 트라우마, 모든 죽음, 모든 고통, 그리고 그가 목격한 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숨 쉬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또 다른 날을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 믿음을 위해 힘쓰고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와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오는 낙관주의를 근거로 삼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요한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섬기고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이 요한의 인사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과 걱정애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 중 일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이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은 이것이니 ,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얻은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 그러므로 우선 , 여기서 상호작용에 주목하세요.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두기 위해 화면을 분할하겠습니다. 그 단락에서 진리, 계명,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주목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또는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불리지만, 진리는 단순히 정의될 수 없는 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진리의 본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계명이 있는데, 계명은 우리가 행하는 일입니다.

계명은 윤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랑. 사랑은 마음의 성향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하고, 따뜻하고, 차갑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대인 관계에서의 헌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저는 '라포(rapport)'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읽고 진리와 관련된 모든 단어, 계명과 관련된 모든 단어,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모든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이 세 단어로 상당히 정의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요한1서, 2서, 3서가 가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가인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반향, 반향, 메아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므로, 신학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종교가 있었다면, 이제 이것이 진정한 종교, 예수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처럼 이 서신도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성취하신 이후 구약의 경건함을 다시금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의 경건함은 약속의 경건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실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거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언어에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후, 우리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요한이 말하는 보혜사(paraclete)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대로 행할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계명들이 모두 구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 말씀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 너희 자녀 중 어떤 자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속이는 자들이 나갔습니다. 좀 무섭죠. 이 속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완전하게 묘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징하고, 특징짓습니다.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 생각에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 의미하시는 바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라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과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분의 지위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부음받은 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다스리셨지만, 어떻게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아들을 통해 오셨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셨으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 재림 때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론은, 시간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분의 사명의 충만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이든, 그들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를 속죄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느낌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명의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온전함,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의 진실성 안에서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도에 동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중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 '행성'과 어원이 같습니다. '방황하고 불안정함'을 뜻하죠. 잠깐 위를 올려다보면 금성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올려다보니 금성이 보이네요. 하늘 전체가 금성이예요. 그리고 별들은 어떤 밤에도 안정적으로 보이죠.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세요. 별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위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거죠.

비행기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행성은 움직이지만 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를 만들지만,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운동을 위해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묘사에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모든 속이는 자가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인물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 다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있고, 그들은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만 해두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를

왜곡한다면,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조차 믿지 않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악마나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은 이 교회에 악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며, 그 영향력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의 자녀 중 일부에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이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할 때는, 음, 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과 걱정" 단락의 마지막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도적이고 목회적인 지도자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셔서 에덴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세 동안 일하여라.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돌보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일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인, 유대교인, 기독교인의 정신은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매일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통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일입니다.

어머니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시나요? 아이들이 먹고, 깨끗 하고, 뛰어놀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거죠. 좋은 부모 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늘 지쳐 있는 부모님 들 .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배우는 법도 배우죠.

아이들은 놀아야 하지만, 형제자매를 섬기는 법, 부모님을 돕는 법, 그리고 하라는 대로 따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다듬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점점 더 잘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요.

존, 이건 구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약의 유산과 관련이 있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했어요.

위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 존이 아시아 교회의 목사라면, 아마 10년, 20년, 아니면 25년 정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노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탄의 회당이 있던 이교 지역에서 교회들이 생겨났죠. 사데에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 어떤 교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사악한 영향력이 많았어요.

한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교 문화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숭배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숭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세공인 조합이 반란을 일으켜 폭동 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고, 생계에 대한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존재했고, 존재했던 이유는 많은 희생과 노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진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보상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세요.

있잖아,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아무 문제 없어. 피곤하고. 왜 방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과제 채점과 강의 준비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부름을 받은 목사이자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때 문자 가 왔는데 , 토네이도 경보 가 발령되어 폭풍이 온 줄 알았습니다. 졸업식이 있던 건물 지하로 내려갔거든요.

위층에 올라가 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과 졸업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 우리 집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졸업식도 떠났고요 . 회장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큰 폭풍이 대도시를 강타하면서 다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백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수천 명이 집과 일자리, 그리고 삶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해하게 될 거라는, 아니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분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가 매우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왜 그 나무가 우리 집에 쓰러지게 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습니까? 나무가 당신 집에 쓰러진 것은 좋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 집인가? 왜 남의 집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지구상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나무가 우리 집에 쓰러지더라도,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과의 연결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래 에서는, 내 마당에 있는 저 나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나무는 더 큰 나무였을 수도 있었어. 더 심하게 쓰러졌을 수도 있었지.

그리고 온갖 이유로, 집 주변의 모든 피해를 살펴보기 시작한 지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집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아마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가 모두 쓰러졌고, 다른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숲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쳤죠. 10초도 안 돼서 언덕 전체를 쓸어버렸고, 나무 한 그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 나무들은 지름이 1미터 정도 되는데, 부러 졌어요. 높이 부러지고, 뿌리째 뽑혔죠.

땅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길이 바로 저쪽을 관통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는 거기에 있었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없었죠. 왜냐하면 섭리적으로, 바람을 보내신 바로 그 신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전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성취감 외에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일의 노동 에서 성취감을 배웁니다 .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그분의 이름 으로 생각하고, 어쩌면 움직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한 말입니다 .

하지만 그 보상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받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의 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 그리고 이것은 속이는 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거하고, 견고하고, 뿌리를 박고,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을 모시느니라 .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처럼,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문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저는 요한이 경고한 것에 대해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과 사도적 메시지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 메시지, 계명, 사회적 존재, 물리적 존재, 그리고 신학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개념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경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둘째, 가르침 은 진리입니다. 그는 진리를 자주 언급하는데, 가르침은 진리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과 교리는 하나님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든 아니든.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리고 그 정의상,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쳤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스스로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진리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인사나 접대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말씀은 여행하는 선교사, 전도사, 그리고 접대하는 일로 칭찬받는 가이오와 같은 교회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요한삼서 5, 6, 7, 8절에 보면, 요한에게 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가이오에게 가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함으로써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타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성하는 곳에는 항상 경쟁자가 있고, 항상 가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지지할지, 누구를 신앙 의 동료 신자로 인정할지 결정 해야 합니다 .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죠.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아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직접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형제자매 나 부모가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방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에서 하룻밤이나 주말 동안 묵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들은 종종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이 친구가 나를 방문하고 싶어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를 내 집 에 맞이할 수 없어 ." 라고 말합니다.

요한2서와 요한3서의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그들이 옹호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집을 속이는 자들의 선교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목회자 리더들과 상의하여 여러분의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난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환대를 베풀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부르시는 사람들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 이 강의를 마치며 작별 인사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께 쓸 말이 많지만, 종지와 잉크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택하신 자매의 자녀들, 즉 요한이 대표하는 지역 교회의 자녀들, 즉 요한이 어디에 있든 에클레시아, 곧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구성하는 신자들, 그 교회의 자녀들,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는 요한삼서의 끝맺음을 대체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표현 방식이 아주 비슷하네요. 물론, 같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완전한 기쁨은 네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감정을 반영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요한1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1서는 우리의 기쁨, 혹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2서와 3서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공유했던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이어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례자 요한에게서 처음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신랑의 친구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은 이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쁨은 자신이 앞서 간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성령께서 몇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증거이자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된 것처럼 열매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사랑, 기쁨, 살롬, 혹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박해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는 근심하겠지만, 네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는 아이를 낳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녀는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들은 정말로 아이들과 할머니를 원하고,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종종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데, 이는 힘든 시련 끝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이 힘들 뿐만 아니라, 임신은 때로는 많은 긴장과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은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곧 일어날 모든 나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 너희 마음이 기쁨 것이요,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충만한 기쁨의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위 대체사장적 기도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 곧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을 연구하는 것은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그 자체로 일종의 노동이며, 강의를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일종의 노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수고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그것은 순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입니다.

그럼, 이 강연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